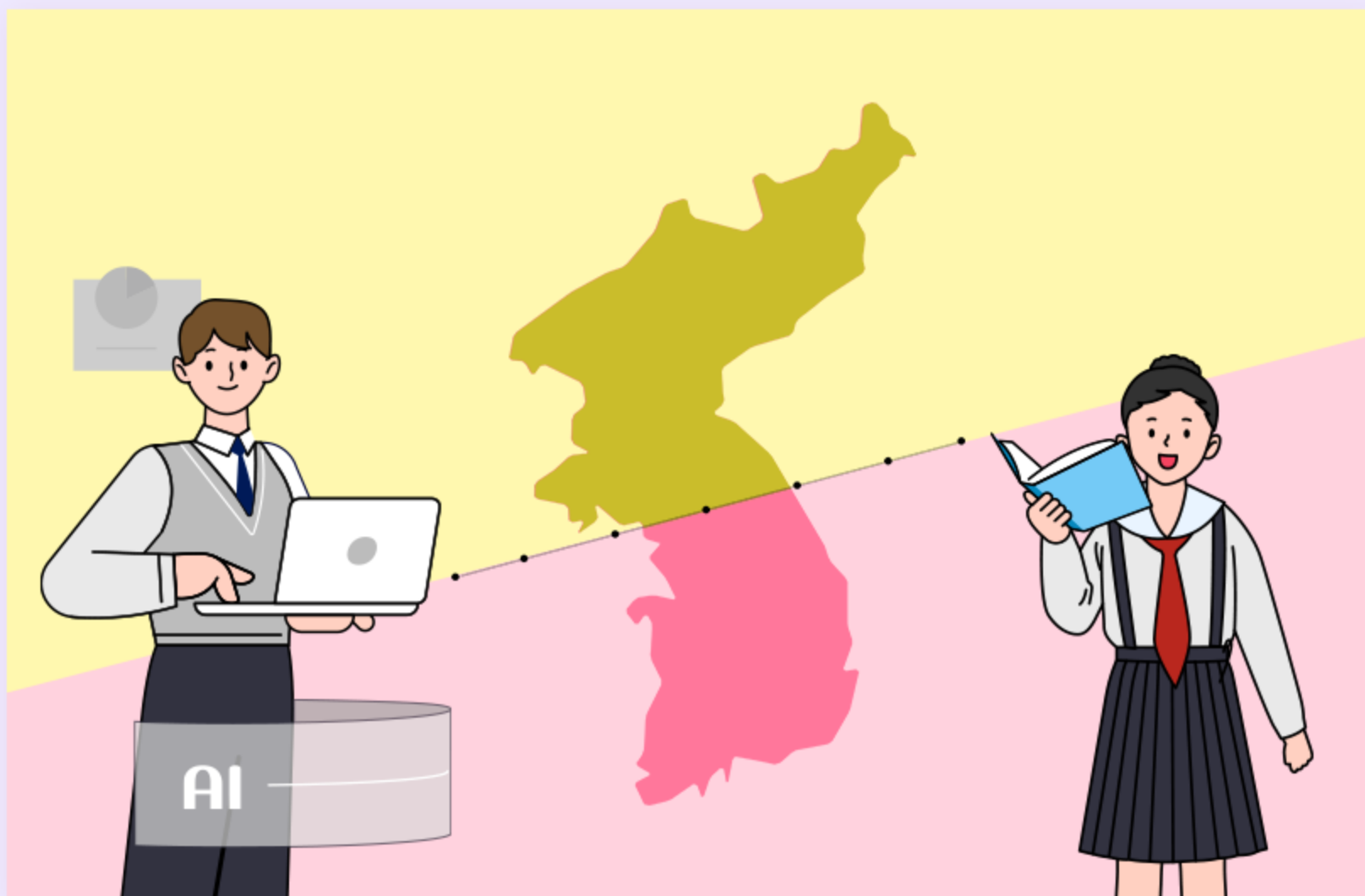


북한 청소년의
일상을
 들여다보다





남과 북은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체제**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폐쇄된 환경과 제한된 정보로 북한 청소년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남한과 북한 청소년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북한에서 청소년기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김정일, 김정은 시기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학령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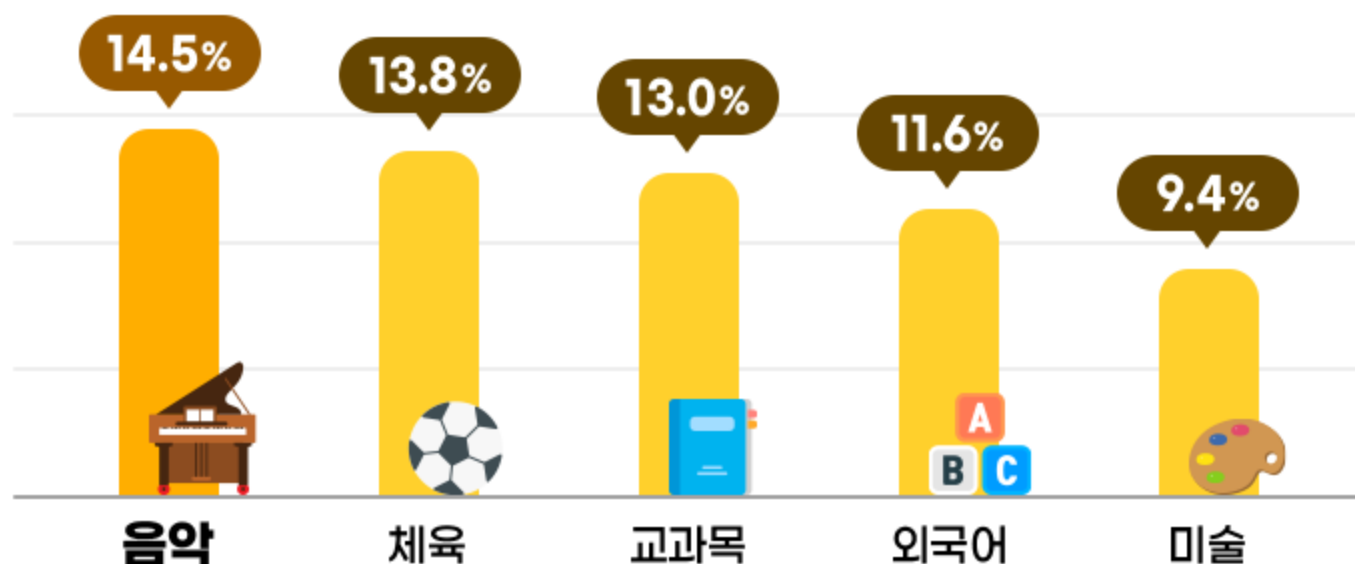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2년 7월 11일 ~ 7월 22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개별면접조사



사교육

북한에서 학업 기간 중 사교육을 받은 경험은
음악이 가장 높았으며 체육, 교과목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예체능 계열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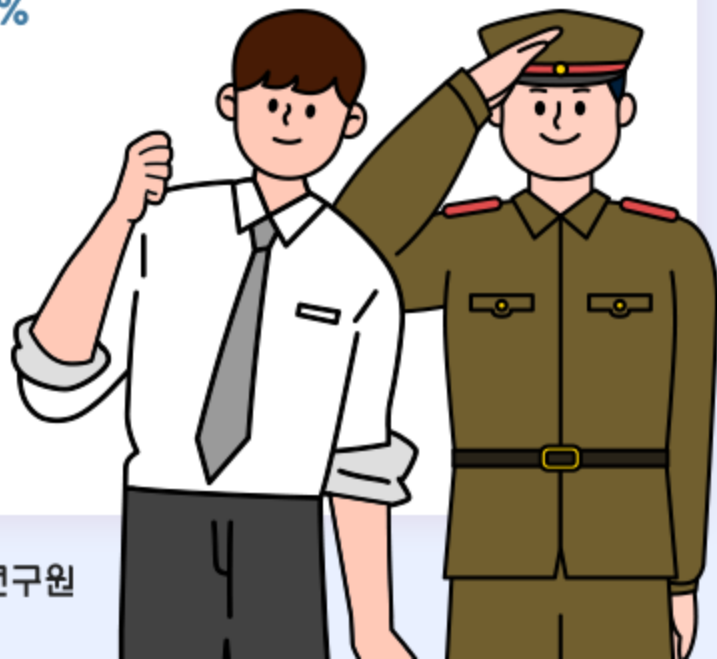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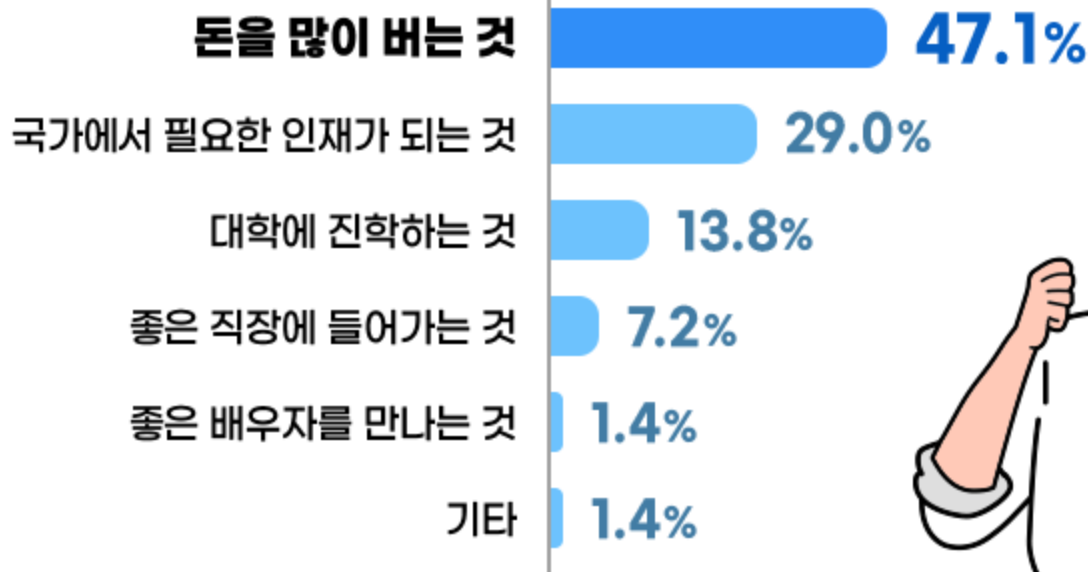


사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생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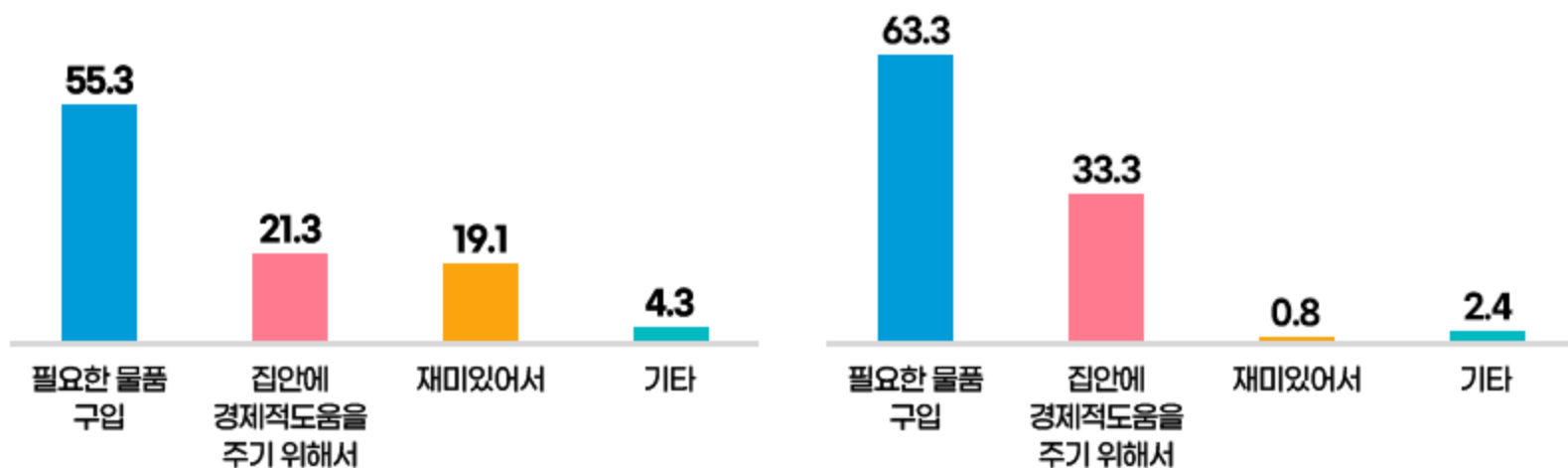
북한에서 청소년기에 성공한 인생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 ‘대학에 진학하는 것’ 순이었는데요.
 청소년기 인생의 목표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한 인생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북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응답자들 중 **34.1%는 학교**에서, **87.0%는 장마당에서 물품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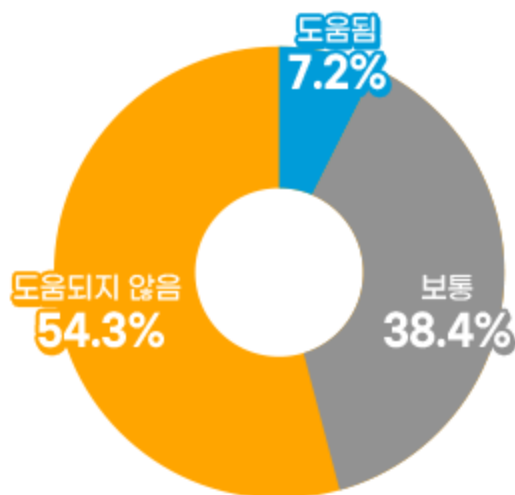
학교 내에서 물건을 사고판 이유

청소년기에 장마당을 이용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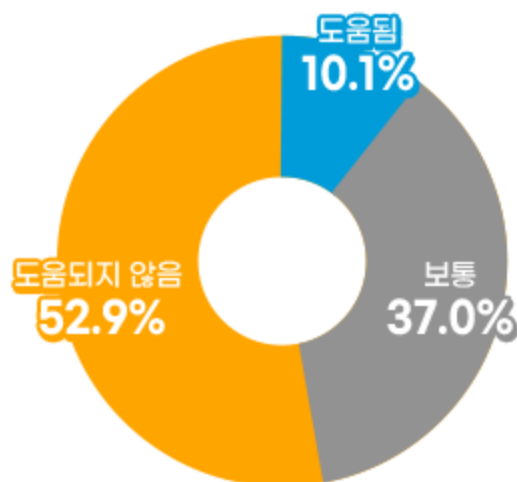
학교와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한 이유는 **필요한 물품 구입과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생활

청소년기에 소년단, 청년동맹 활동이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년단 활동이 장래의 진학 및
진로에 도움 된 정도



청년동맹 활동이 장래의 진학 및
진로에 도움 된 정도

■ 도움되지 않음 ■ 보통 ■ 도움됨

청소년기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상당수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확산과 처벌

청소년기에 남한 드라마·방송 시청, 남한 패션·스타일 모방,
남한 노래·춤 모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49.2%, 43.4%, 49.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남한 드라마(방송) 시청으로 처벌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6%**에 달했는데요. 실제 북한에서는
남한 문화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 청소년정책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동질성 회복 및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북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관련 민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통일시대 청소년 활동 정책 수행을 위한
청소년 시설 수요 파악 및 청소년 지도자 교류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및 정책 개발 기구의 설치·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미래의 한반도를 만들어 갈 주인공
남·북 청소년이 이질감 없이 교류해 나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 청소년 정책 분석 연구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